

교환학생 보고서

소속전공	전자공학부	학 번	2012**26	성 명	강준구
주 소		휴대전화		메일주소	
파견국가	리투아니아	파견대학	VG TU	파견학기	2016-2
소요경비	대략 총 경비로 900만원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리투아니아의 물가는 한국에 비해 현저히 싼 편입니다. 생활비는 300만원 정도 지출 하였으며 나머지는 여행 경비로 이용하였습니다. 리투아니아의 저렴한 물가덕분에 더 많은 나라를 경험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주거	기숙사 신청을 하는 데 실패하여 리투아니아에 도착하여 첫 1주일만은 호스텔에서 살았습니다. 리투아니아 현지인 친구를 사귀어 도움을 받아 플랫을 구할 수 있었고 기숙사보다 넓고 편한 환경에서 살 수 있었습니다. 가격은 기숙사보다 대략 한달에 10만원 정도 더 비쌌지만 통학 거리등은 오히려 더 가까웠습니다.				
룸메이트	금오공대에서 파견된 한국 학생들 모두 기숙사를 구하지 못하였고 그리 하여 플랫에서 다 같이 살았습니다. 외국인 룸메이트와 사는 것과 비교하였을 때 장단점이 있겠지만 식사 등을 같이 해결할 수 있었고, 문화적인 차이도 겪지 않으며 유익하게 보낼 수 있었습니다.				
기숙사 내 한국인	기숙사를 살지 않았습니다.				
파견대학 정보	전자과, 기계과, 건축과의 경우에는 중심가에서 멀지 않은 곳에 전공건물들이 위치하여 있으며 각 건물마다 도보로 10분에서 15분 정도에 있습니다. 하지만 본관의 경우에는 교양수업들이 진행되며 중심가에서 버스로 40분 가량 이동해야 할 만큼 멀리 있습니다. 기숙사는 본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파견대학 국제 교류부서	빌니우스 공대의 국제 교류 부서는 학기중에 메인빌딩 2층으로 이전 하였으며 항상 서류적인 일들을 위하여 방문하면 웃으면서 반겨주고,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한국과는 다르게 일처리는 다소 느리게 되고 많이 잊어먹는 편이라 답답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주말 및 여가활동	빌니우스는 물가가 싸고 평화로운 도시이지만 구경할 곳도 많이 있습니다. 또한 리투아니아 뿐만아니라 틈틈이 짬을 내서 여행을 다니며 주말을 보냈습니다.				
멘토 또는 교류도우미	학기 시작 전 멘토로부터 연락을 받았고 생활적인 면에서 어려운 부분들을 많이 해결해 주었고, 자주 만나 맥주도 마시며 친목도 다졌습니다. 우리 학교보다 멘토 시스템은 더 잘 갖춰져 있다고 생각될 정도로 교환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전공	전자공학부로서 전공수업을 자동제어와 운영체제를 들었습니다. 전공만으로도 벅찬데 영어로 수강하여 정말 힘들었지만 그래도 시험방식은 한국과 그리 다르지 않아 포기하지 않고 이수 할 수 있었습니다.				
수업 스케줄	수업은 총 5과목을 수강하였습니다. 목요일과 금요일은 공강이었고, 월요일만 조금 타이트하게 돌아갔고 나머지는 다 할 만 하였으나 1교시에 1시간 30분씩 수업을 하여 연강을 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학생할인 관련	리투아니아에서는 학생 할인은 잘 이루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버스 요금만 한달치를 학생요금으로 하면 어른보다 15유로 정도 절약 할 수 있을 뿐 다른 곳에서는 학생 할인 개념을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ISIC카드 활용	저는 ISIC카드를 리투아니아에서 발행하였으며 ISIC 카드는 리투아니아 보다는 다른 국가에서 더 많이 이용하였습니다. 프랑스에서 루브르 박물관이라든가 그리스의 많은 유적지 들은 ISIC 카드를 제시하면 무료로 입장할 수 있어서 적지 않은 돈을 절약 할 수 있었습니다.
영어공부	멘토나 현지 친구들을 만나 직접 여태껏 공부했던 영어를 활용 해 봄으로써 내 뜻을 보다 잘 전달 할 수 있는 방식을 터득하였고, 시간이 날때마다 단어를 외우며 토익 준비를 하였습니다.
여행	저는 대략 20개국 정도를 여행하였습니다. 학기 시작 전 4개국 학기중 7개국, 학기 후 9개국을 여행하였습니다. 파리의 이미지는 너무 감명깊어 교환학생 중 2번을 갔을 뿐 아니라 포르투갈의 사람들 사는 분위기라든가, 영국의 물가쇼크 등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배울 수 있었습니다.
교통	리투아니아는 해외로 가는 기차편이 없고 버스나 비행기만 있습니다. 하지만 버스 정류장이 많이 있으며 공항 역시 중심가에서 버스로 20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매우 접근성이 용이합니다. 또한 대중교통 시스템도 다른나라에 비해 저렴하고 잘 갖춰져 있어 이용하기에 매우 편리합니다.
날씨	리투아니아의 날씨는 굉장히 춥습니다. 8월달에 도착하였을 때만 하더라도 한국의 가을 정도의 날씨 였으나 한달 정도 생활 한 후에는 패딩을 입고 다녀야 할 정도로 추웠습니다. 1월달이 가장 춥다고 알려져 있으나 저는 12월달에 출국을하여 그 추위는 경험하지 못하였습니다.
해외인턴	제가 잘 모르는 부분입니다.
추신	영어 공부를 많이 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는만큼 활용할 수 있고 그만큼 실력이 늘어 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보완점	리투아니아는 딱히 보완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